

농산어촌 초교에 IT·예술·과학 '특별교실'

현대차 정몽구재단

겨울방학 맞아 '다빈치교실' 열어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6일부터 17일까지 교육지원 사업 '겨울방학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빈치 교실은 농산어촌 아이들에 문화 예술과 과학, IT 등 분야 수업을 제공하는 행사다. 2012년 처음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6000여명에 혜택을 줬다.

올해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117명이 32개팀으로 나뉘어 지역 초등학교 21곳을 방문해 5일간 수업을 진행한다.

대학생들은 학생들에 직접 기획한 에코백 만들기, 태양열 폐품 자동차 만들기, 벽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6~17일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지원 사업 '겨울방학 온드림스쿨 다빈치 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재단

화 그리기 등 수업을 준비했다.

재단은 수업 교재와 교구 비용, 교육 재

능기부자의 숙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서민만 잡는 미세먼지 대책



기지 수첩

김현정
(정책사회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사대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노후경유차운전자들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애꿎은 서민만 잡는다", "5등급 차를 몰고 다니는 건 생활이 어려워진다. 차를 바꿀 돈이 있으면 벌써 바꾸지 않았겠냐",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불이익 뿐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대면서 5등급 차는 전체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문은 37%로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연구원은 또 국내 전체 등록차량 2320만대(2016년 기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10.7%인 247만대로 노후경유차에서 나온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종로구, 중

구 등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차운행을 금지했지만 하늘은 한 달 내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연기만 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에서 '월별 평균 대기오염도 정보'를 확인해봤다.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12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2.92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농도는 23.84 $\mu\text{g}/\text{m}^3$ 였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한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는 42.24 $\mu\text{g}/\text{m}^3$, 초미세먼지 농도는 28.64 $\mu\text{g}/\text{m}^3$ 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겨우 0.68 $\mu\text{g}/\text{m}^3$ 줄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4.8 $\mu\text{g}/\text{m}^3$ 나 증가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은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 시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1~16일 사대문 안을 진입한 5등급차 4091대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A4용지 다섯 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 그 어디에서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줄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시는 서민들로부터 과태료 명목으로 10억2775만원을 갈취해간 셈이다. /hjk1@metroseoul.co.kr

한부모 여성 창업 지원 '희망가게' 400호점 개점

아모레퍼시픽

담보·보증 없이 창업자금 대출 지원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한부모 여성 창업 대출 지원 사업 '희망가게'가 7일 400호점을 정식 개점했다.

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의 자립을 위한 창업 대출을 지원하여 그 가족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 사업이다. 창업을 통해 여성

스스로 CEO가 되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희망가게 사업은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한부모 여성에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에게는 최대 4000만 원의 창업자금(운영자금 2천만 원, 점포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연 1%의 상환금리로



'희망가게' 400호점 창업주. /아모레퍼시픽

제공된다. 상환 기간은 8년이며 상환금과 이자는 또 다른 한부모 여성을 위한 창업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운세

1월 9일 (음 12월 1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 48년생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지기 쉽다. 60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 72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하라. 84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 한 것.



37년생 남쪽으로 떠나면 그리워하는 걸 본다. 49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열린다. 61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73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85년생 좋은 것을 포기하나 다른 선물이 주어진다.



38년생 계약이나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다. 50년생 신용을 중시 여기고 작은 약속도 잊지 마라. 62년생 원하던 일이 손에 주어진다. 74년생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나 인연이 아니다. 86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39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림다. 51년생 우물 안 개구리는 넓은 하늘을 보지 못한다. 6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75년생 혼자서 가고 혼자서 멈춘다. 87년생 옳지 않은 일에 고집을 피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40년생 기대가 크니 실망도 크다. 52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 보지 마라. 64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가는 일을 그만둔다. 7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명심. 88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으니 희망을.



41년생 그리운 사람이 찾아온다. 53년생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마라. 65년생 지치지 쉬운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77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89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조금 신중해 보라.



42년생 힘내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라. 54년생 빈대 태우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6년생 심년 목은 체증이 해소된다. 78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심정. 90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색해서 손실이다.



4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애하시길. 55년생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67년생 모두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79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91년생 상사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



44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꿔봐라. 56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68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80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겸손하게. 92년생 직장에서는 화합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45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라. 57년생 먼저 용서하고 칭찬해 주면 마음을 얻는다. 69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한 날. 81년생 어디에 행운이 있는지 모르니 항상 노력하고 준비. 9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46년생 영원한 비밀은 없다. 58년생 이적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70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걷어 간다. 82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94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서 가는 것이 현명.



47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 한다. 59년생 어린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71년생 조돈은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83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95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딱 좋은 날.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1	3		
3	9	8	4					5
8				1	3		5	
	2			6				3
6			7	2		8		
4	7	1	3					9
						6	1	
								7

					7		8	5
				5		2		
				9				
	9				8	1	2	
		5						3
1			2			4		9
	7		3		2		6	
				7			3	
9					8	1		
2								

스도쿠 정답								
2	7	8	5	1	9	8	2	6
8	1	9	2	7	5	6	3	4
6	3	5	9	8	1	2	7	4
1	8	7	2	4	5	6	9	3
5	2	6	7	9	8	5	1	3
9	5	2	1	6	4	7	8	3
5	9	1	1	7	8	6	9	5
7	6	8	5	9	2	1	3	4
2	6	8	5	9	7	1	4	3



김상희의四季

화개(華蓋)

교보문고는 2019년의 독서 키워드가 '오나나나'라고 발표했다. '오나나나'는 오롯이 나를 향한다면에 의한 나를 위한 삶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나의 단어일 뿐이지만 나에 관한 관심이 크게 많아진 사회 풍조를 보여준다. 나에 대해서 집중 성향이 커지는 사회 트렌드를 봤을 때 팔자 안에 화개의 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화개는 묘지로 화려함을 덮고 자숙한다는 암시가 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사회적 욕망이 적다는 특성도 있다. 예술의 별이며 고독하다. 화개가 중중하면 머리가 비상해도 무능하고 나태하기 쉽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서 철학적이고 사색하는 것처럼 보인다.

진(辰)과 술(戌)의 관계라면 수라(修羅)의 영역에 속하므로 고독함은 더욱 심하다. 화개가 월살(月煞)과 흉충되면 동분서주하고 마지막에 애로가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물질에 관해서는 궁핍한 생활을 한다고 보는데 여자가 화개 팔자일 때는 과부가 되거나 재혼을 한다는 해석도 있다.

남편이 구도자이거나 칠살과 합작하면 성직자와 정통하는 때도 있다. 운세의 향상 시에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고독과는 대조적으로 참모로 창의성이 뛰어나다. 혼자 잘하는 사주 특성이 잘 반영된 작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도 적합하다.

예술적인 일을 하며 스스로 모든 걸 꾸려나가면서 효율이 높고 업무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떠오른 크리에이터는 요즘의 사회 흐름이라 본다.

화개 기운은 예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장성과의 합작일 때는 지도자로 그 재능과 이름을 떨치게 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4호